

Holland 유형별 대학생의 진로걱정이 진로결정상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최민서*

¹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A Study on the effect of Vocational Decision Status According to Career Worries of Holland Preference Type's University Students

Mis-Seo Choi¹*

¹Department of Vocation, Kyungg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졸업예정자의 Holland 유형에 따라 진로결정상태를 분석하고 진로결정상태에 진로걱정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서 상담자들이 상담 장면에서 대학생들의 진로걱정의 다양함을 고려한 상담진행으로 내담자의 자기실현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및 진로 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내담자의 진로걱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프로그램과 상담방식으로 진행해왔음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는 보다 효과적인 진로상담을 위해, 차별적인 상담개입과 전략을 세우기 위한 기초의 연구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충청지역의 4년제 대학교 중 4학년 2학기의 졸업예정자 총 606명이며, 자료 수집은 2013년 11월 4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표준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Holland 유형별 대학생의 진로걱정과 진로결정상태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진로걱정도와 진로걱정유형이 Holland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Holland 유형별로 차이를 보인 진로결정상태에서 진로걱정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진로에 대한 무걱정과 걱정, 그리고 진로결정유형 중 의존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진로걱정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매개효과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the decision-making status of expected graduates depending on their Holland preference type, as well as the influence career worries have on vocational decision status. By discovering this mediating effect, career counselors can carry out counseling based on the variety of career worries college students have, further supporting self-actualization of the client. As the previous studies on group counseling programs and the effects of career counseling have not yet considered the difference between various types of career worries and carried out identical programs and counseling metho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marking the emergence of differentiated counseling intervention and strategy for more effective career counseling. This research is based on a survey conducted on 606 expected graduates attending six 4-year universities in Seoul, Gyeonggi, Chungcheong areas. The students surveyed are in the second semester of their senior (4th)years, during two weeks from november 4, 2013.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career worries and the type of career worries differed between college students that have different types of Holland preference, and such difference was meaningful. Second, examination on the influences that career worries have on different vocational decisions depending on Holland preference types, found that the state of anxiety-free and anxiety toward career and dependence, as one of vocational decision types, together work as mediators.

In conclu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on that it reveals the mediating effects that career worries have on vocational decision status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career worries, Holland preference type, vocational decision status,

*Corresponding Author : Min-Seo Choi(Kyunggi Univ.)

Tel: +82-10-3462-7725 email:ladyminseo@gmail.com

Received February 23, 2015

Revised (1st March 31, 2015, 2nd April 3, 2015)

Accepted May 7, 2015

Published May 31, 2015

1. 서론

대학졸업예정자들에게 취업이란 단순히 직업선택과 관련된 활동만이 아닌 전 생애 활동 중 진로목표 및 진로가치관 형성의 첫발을 내딛는 기초 단계로써 포괄적인 개념이다.

또한 학교교육을 마감하고 직업인으로서 정식으로 사회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기에 한 개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세계경기침체와 더불어 고용시장의 고학력자 수요 및 공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대학생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평균 대학진학률이 50%에 반해 우리나라 청년들의 대학진학률은 2014년 70.9%로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다[1].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실업자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 1월 전체 실업률은 작년 대비 0.3% 증가하여 전체 실업률은 3.8%에 달한다. 이 중 청년실업률은 전년 대비 0.9% 상승한 9.0%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체 청년실업률 9.0% 중에서 20대의 4년제 대졸 미취업자는 8.5%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4년제 대졸 취업자들이 첫 직장을 구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2개월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개월 늘어났으며, 이는 2006년 5월 이후 8년 만에 최장기간이다[2].

이렇듯 사회전반적인 취업난과 대학생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학교에서의 취업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대학졸업예정자는 진로결정의 순간에 다가가게 된다. 직업이 확실히 결정되고 준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의 형성면에서도 매우 불안정한 시기일 수밖에 없는 대학생은 개인의 특징적인 진로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진로결정상태에 놓이게 된다. 구남희(1997)는 Holland의 진로유형에 따라 특징적인 진로 의사결정방식이 있다고 보았다[3]. 즉, 현실형은 직관적이고 의존적인 경향이 강하고, 탐구형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확신하는 특징을 지니며, 예술형은 진로에 대해 직관적인 성향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성향이 강하고, 진취형은 주도적으로 결정하기를 선호하며, 관습형은 타인의 결정에 더 따르는 성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Holland 유형에 따라 진로결정방식이 다르게 되고 진로결정상태가 달라진다.

실제 진로 상담 장면에서는 자신의 진로결정을 하였

지만 그 진로를 위한 수행이 어렵거나 자신의 선택과 수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진로미결정상태이지만 자신의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편안한 상태를 나타낸 학생들도 또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진로결정상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심리적인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 이들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로결정과정에 있어서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정서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기역력자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매개요인임을 밝혀내거나[4] 진로타협의 하위요인 흥미타협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정보부족, 명확성부족, 필요성부족은 진로결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었다[5] 또한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 4학년 2,530명 중 79%가 상당한 수준의 취업 및 진로 관련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6], 대학생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건으로 취업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며[7], 취업불안의 발생 원인을 취업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보았다[8]. 이러한 현실에서 진로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고 진로걱정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있어 겪는 하나의 과정이다. 진로 걱정은 취업을 앞둔 대학졸업예정자들에게 취업준비를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취업불안과 취업스트레스를 가져옴으로써 부정 정서의 기초정서 역할을 한다. 즉, 진로걱정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개인적 정서 및 환경적 상황을 포함하는 여러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이다.

대학생들의 진로걱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개인별 진로걱정의 차이를 인정하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극복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의 진로장벽[9,10]과 진로결정[11]에 관한 연구들과 취업불안[7,8]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 또한 취업스트레스 연구들[12,13]을 통해 취업관련 심리적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었지만 진로결정이라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이루어내야 하는 대학졸업예정자들의 진로걱정을 연구주체로 다룬 연구는 지금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졸업예정자의 Holland 유형에 따라 진로결정상태를 분석하고 진로결정상태에 진로걱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들이 상담 장면에서 대학생들의 진로걱정의 다양함을 고려하여 상담을 진행시킴으로써 자기실현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및 진로 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내담자의 진로걱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프로그램과 상담방식으로 진행해왔음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는 보다 효과적인 진로상담을 위해, 차별적인 상담개입과 전략을 세우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이론적 배경

2.1 Holland 유형별 특성

Holland 유형의 6가지 특성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적 유형은 추상적인 것보다 확실한 것을 다루며 보다 현재지향적이며 직접 손을 사용하고, 복잡한 사물들에서 격려되고 보상을 받는 환경을 선호한다.

둘째, 탐구적 유형은 관측, 학습 조사, 분석, 평가, 문제해결 등을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학문적이거나 과학적인 성공을 선호한다.

셋째, 예술적 유형은 상상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지향하며 심미적·혁신적·직관적 능력을 소유하고 구조화된 작업환경을 싫어한다.

넷째, 사회적 유형은 인간의 문제와 성장, 인간관계 등을 지향하며, 사람과 직접 일하기를 좋아하고 원만한 관계를 갖는다.

다섯째, 진취적 유형은 주장이 강하고 지배적이며, 새로운 도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기확신을 갖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대화를 중시하고 설득적이며 영향력 있고, 조직체를 위한 관리나 경제적인 목표 등에 관련된 언어를 사용한다.

여섯째, 관습적 유형은 규칙을 따르고 구조적이며 예언적인 것을 좋아한다. 이들은 자료를 갖고 일하기를 좋아하며, 타인의 지시에 기꺼이 따르고 세부적 활동을 수행한다.

2.2 진로걱정

선행연구에서 취업불안과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다루어져왔지만 진로걱정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걱정을 다루고자 하며 취업불안과 진로걱정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임상적으로 걱정이 불안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불안은 정서 외에도 쉽게 피로해짐, 근육긴장, 수면 장애 등의 여러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는 상태로 포괄적으로 쓰인다.

Davey(1994)는 정상적인 걱정은 '미래에 일어날 외상적인 사건을 막고, 외상적인 사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정신적인 문제해결과정'이라고 보았다. 걱정의 구체성을 증진시키는 개입이 불안 수준과 범불안장애의 인지적 편향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연구에서[15] 걱정은 다루는 방식에 따라 불안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렇듯 선행연구에서 걱정이 불안과 서로 같지 않은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걱정은 불안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임을 알 수 있다. 진로는 개인의 생애 직업 발달과 그 과정 내용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으로써[19] 직업에 포함된 활동과 지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하는 일과 관련된 활동들 모두를 의미한다.

걱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인지현상으로 그 주제나 강도, 지속성 등에서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학생들은 미래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 앞에서 자신의 적성, 흥미, 성격과 맞는 직업을 찾아낼 수 있을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선택한 직업에 만족할 수 있을지 등 수많은 질문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와 같은 미래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위협적 요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왜곡을 보이고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문제 해결보다는 인지적 회피의 특성을 보이며 높은 수준의 걱정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 해결 지향 능력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16]만큼 미래 직업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학졸업예정자들의 진로에 대한 걱정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진로걱정(career worries)이란 진로와 걱정의 합성어로 명확하지 않은 미래의 진로계획, 결정한 진로에 대한 자신의 적성 및 흥미의 일치여부와 적응성

의 막연한 두려움으로 진로선택을 앞둔 사람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인지현상으로 정의한다.

2.3 진로결정상태

진로결정상태(vocational decision status)는 진로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점과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를 의미한다[17]. Savickas는 결정성과 편안성 척도의 점수로 '결정한-편안한', '결정한-불편한', '미결정한-편안한', '미결정한-불편한'으로 내담자의 결정수준을 구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8]. 그러나 Jones와 Chenery는 Holland(1997)의 연구결과 중 미결정학생들의 상당수가 그들의 미결정상태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고한 것에 주목하고 편안성을 결정성과 별개의 차원으로 분리시켜서 그 조합에 따라 결정-편안, 결정-불편, 미결정-편안, 미결정-불편의 네 집단으로 진로결정상태의 유형을 분류하였다[17,19].

본 연구에서는 Jones와 Chenery[17]의 결정성과 편안성의 차원을 바탕으로 진로결정상태를 측정한다.

2.4 선행연구분석

Jones와 Chenery(1980)는 진로 미결정의 하위유형들을 기술하기 위하여 결정성, 결정에 대한 편안성의 수준, 미결정 이유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 진로결정상태모형을 제안하였다. 진로 결정성과 정서적 편안성을 독립된 두 축으로 분리시켜 조합해보면 결정-편안, 결정-불편, 미결정-편안, 미결정-불편 집단으로 나누었다. 국내에서도 Jones와 Chenery가 제안한 진로결정상태모형에 바탕을 두고 진로결정 유형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혜성·홍혜경(1998)의 연구결과 안정결정형, 다재다능형, 잠정결정형, 불안결정형, 혼돈미결정형, 수행불안형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장선철(2004)은 결정-강박형(37.0%), 결정-회피형(26.8%), 결정-이상형(21.1%), 결정-혼돈형(15.2%)으로 분류했으며, 약 80%의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있으나 그 결정에 매우 불편해 하며 높은 불안 강박을 갖고 있다고 보고 했다. 백지숙(2006)의 연구에서 결정-편안(29.5%), 결정-불편(36.4), 미결-편안(6.9%), 미결-불편(27.3%)형으로 분류하였고 학생들의 2/3는 자신의 결정에 여전히 갈등하고 있으며 미결정-편안형은 정서적응과 학업적응에서 결정-편안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상태를 Jones와 Chenery(1980)

이 제안한 진로 결정성과 정서적 편안성을 독립된 두 축으로 분리시켜 조합한 결정-편안, 결정-불편, 미결정-편안, 미결정-불편의 4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진로걱정을 독립적인 구성개념으로써 걱정을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는 Borkovec, Robinson, Pruzinsky와 Depree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위협적 요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왜곡을 보이고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문제 해결보다는 인지적 회피의 특성을 보이는데 높은 수준의 걱정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 해결 지향 능력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6].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Dugas의 걱정에 대한 인지행동적 모형에 근거하여 청소년기 걱정의 개인차 양상을 결정하는 인지변인의 조합별 군집양상과 걱정수준이 밝혀졌다[20].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집단별로 연구하여 자기비판적 우울, 의존적 우울, 자아존중감과의 유의한 차이에 따라 완벽주의자들에게 자기비판적 성향이 나타나는 선행연구가 있었다[21].

본 연구에서는 진로걱정의 하위 변인으로 진로걱정정도를 무걱정과 걱정으로 나누어 진로걱정정도를 통한 진로결정상태를 연구하고 또 다른 진로걱정의 하위변인으로서 진로걱정유형을 자기존중성, 의존성, 자기비판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로걱정유형이 진로결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Table 1.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object of the study

division		Respondent	Percentag
Gender	male	293	48.3
	female	313	51.7
	sum	606	100.0
Holland prefere-nce Type	Realistic	53	8.7
	Investigative	37	6.1
	Artistic	102	16.8
	Social	157	25.9
	Enterprising	148	24.4
	Conventional	109	18.0
sum		606	100.0

본 연구는 2013. 11. 4부터 2주간에 걸쳐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총 60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개인적 특성은 남학생 293명, 여학생 313명이며 Holland유형은 사회형이 25.9%, 진취형이 24.4%, 관습형이 18%, 예술형이 16.8%, 현실형이 8.7%, 탐구형이 6.1%의 순으로 나타났다.

3.2 진로걱정정도 척도

진로걱정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문문항은 Pennsylvania 걱정 증상 질문지를 토대로 하였다. 걱정의 범위를 진로로 제한하여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Meyer, Miler, Metzger 및 Bo-rkovec(1990)에 의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무걱정은 6개의 문항, 걱정은 4개의 문항으로 진로걱정정도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여 무걱정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68 ~ .73로 나타났고, 걱정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51 ~ .78로 나타났다.

3.3 진로걱정유형 척도

첫째, 자기존중성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기존중감 척도(RSE)를 번안한 것[26,27]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8이다.

둘째, 의존성은 Blatt 등(1976)이 개발한 우울 경험 질문지를 조계임(199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51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비판성은 Is-hiyama와 Munson(1993)에 의해 개발된 자기-비판적 인지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5로 나타났다.

3.4 진로결정상태 척도

본 연구에서 개인의 진로결정상태는 진로결정상태모형을 이루는 결정성, 편안성 차원에 따라 규정된다. 결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CDP의 결정성 1, 2문항과 Betz와 Voyten(1997)가 개발한 진로결정효능감 단축형 척도(CDMSES-SF) 3, 4문항을 사용하였다.

편안성 척도는 CDP의 편안성 1, 2문항과 Betz와 Voyten(1997)가 개발한 진로결정효능감 단축형 척도(CDMSES-SF)에서 3문항, Osipow 등(1986)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 (Career Decision Scale; CDS)에서 4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정성 4개의 문항과 편안성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결정성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5이며 편안성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8이다.

3.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Holland 유형별로 진로걱정, 진로결정 각각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걱정과 진로결정상태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검증에서의 유의수준은 5%($\alpha=.05$)이하를 채택하였다.

4. 연구결과

4.1 Holland유형별 진로걱정정도의 차이 분석

Holland유형에 따른 진로걱정정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able 2 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진로걱정정도의 하위 요인인 무걱정과 걱정은 모두 Holland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고 무걱정은 진취형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형, 현실형, 탐구형, 관습형, 예술형 등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걱정은 예술형의 평균 점수가 제일 높았으며 진취형이 가장 낮은 평균차이를 보여 무걱정과 걱정의 평균차이 순서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Table 2. One way variance analysis of career worries degree according to Holland preference Type

career worries degree	Holland preference Type	M	SD	F
Non-career worries	Realistic	1.65	.39	17.256***
	Investigative	1.61	.34	
	Artistic	1.41	.35	
	Social	1.67	.38	
	Enterprising	1.77	.30	
	Conventional	1.46	.38	
Career worries	Realistic	1.66	.58	9.540**
	Investigative	1.77	.35	
	Artistic	1.84	.38	
	Social	1.58	.38	
	Enterprising	1.54	.42	
	Conventional	1.80	.46	

***p<.001

4.2 Holland유형별 진로걱정유형의 차이 분석

Holland유형에 따른 진로걱정유형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able 3 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진로걱정유형의

하위요인인 자기존중성, 의존성, 자기비판성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 되었다. 진로걱정유형 중 자기존중성은 진취형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사회형,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관습형 등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의존성은 관습형의 평균점수가 제일 높았고 예술형, 진취형, 사회형, 탐구형, 현실형 등으로 나타났다. 자기비판성은 탐구형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예술형, 관습형, 현실형, 사회형, 진취형 등의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Table 3. One way variance analysis of career worries type according to Holland preference Type

career worries type	Holland preference Type	M	SD	F
Self-Esteem	Realistic	3.40	.72	7.903***
	Investigative	3.28	.84	
	Artistic	3.15	.77	
	Social	3.56	.98	
	Enterprising	3.64	.78	
	Conventional	3.10	.83	
Dependence	Realistic	2.48	.46	13.167***
	Investigative	2.50	.56	
	Artistic	2.90	.58	
	Social	2.54	.59	
	Enterprising	2.55	.58	
	Conventional	2.95	.56	
Self-criticism	Realistic	2.64	.76	3.101**
	Investigative	3.07	.51	
	Artistic	2.83	.91	
	Social	2.59	.95	
	Enterprising	2.54	.92	
	Conventional	2.75	.89	

p<.01, *p<.001

4.3 Holland유형별 진로결정상태 분석

Holland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상태는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진로결정상태의 결정성은 평균점수가 9보다 크면 결정, 작으면 미결정이기 로 Table 4를 통해 예술형과 관습형은 진로가 미결정 상태이며 현실형, 탐구형, 사회형, 진취형, 등은 진로결정이 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편안성은 평균점수가 9보다 크면 편안한 상태로 9보다 작으면 불편한 상태로 예술형과 관습형, 탐구형은 불편한 상태이며 현실형, 탐구형, 사회형, 진취형 등은 편안한 상태로 나타났다. 아래 평균점수에 따라 Holland유형별 진로결정상태를 Table 5 으로 정리하였다.

Table 4. One way variance analysis of vocational decision status of Holland preference type

vocational decision status	Holland preference type	M	SD	F
Decidedness	Realistic	10.07	1.54	30.26***
	Investigative	10.02	1.96	
	Artistic	8.77	2.40	
	Social	10.94	2.52	
	Enterprising	11.20	1.92	
	Conventional	8.80	1.35	
Comfort	Realistic	10.71	1.56	22.30***
	Investigative	9.00	2.11	
	Artistic	8.90	2.74	
	Social	10.01	2.72	
	Enterprising	11.36	2.34	
	Conventional	8.49	2.51	

***p<.001

Table 5. vocational decision status of Holland preference type

Holland preference Type	vocational decision status
Realistic	decidedness-comfort
Investigative	decidedness-discomfort
Artistic	indecision -discomfort
Social	decidedness-comfort
Enterprising	decidedness-comfort
Conventional	indecision -discomfort

4.4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Holland 유형, 진로걱정, 진로결정상태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현실형은 진로걱정유형 중 의존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진로결정상태에서 편안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탐구형은 진로걱정유형 중 자기비판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적 상관, 걱정에서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예술형은 진로걱정정도 중 무걱정은 유의한 부 또한 진로걱정유형 중 자기존중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 의존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형은 진로걱정정도 중 무걱정과 걱정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이루며 진로걱정유형 중 자기존중성과 의존성에서 유의한 상관이 검증되었으며, 결정성과 유의적으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진취형은 진로걱정의 무걱정, 걱정, 자기존중성, 의존성, 자기비판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결정성과 편안성에 Holland 유형 중 특히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관습형은 무걱정, 걱정, 자기존중성, 의존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결정성과

Table 6. analysis of correlation among Holland preference type, Career worries, Vocational decision status

divis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Realistic	1												
2.Invest igitave	-.079	1											
3.Artistic	-.139**	-.115**	1										
4.Social	-.183**	-.151**	-.226**	1									
5.Enterprising	-.176**	-.145**	-.256**	-.336**	1								
6.Conventional	-.145**	-.119**	-.211**	-.277**	-.266**	1							
7.Non-career worries	.033	.000	-.230**	.096*	.246**	-.186**	1						
8.Career worries	-.005	.054	.167**	-.126**	-.166**	.136**	-.130**	1					
9.Self Esteem	.001	-.034	-.124**	.109**	.157**	-.158**	.030	.073	1				
10.Dependence	-.096*	-.074	.172**	-.128**	-.111**	.219**	-.058	.215**	.017	1			
11.Self-criticism	-.015	.109**	0.073	-.059	-.087*	.037	-.054	.328**	.174**	.400**	1		
12.Decidedness	-.007	-.011	-.263**	.209**	.265**	-.267**	.173**	-.234**	-.010	-.269**	-.285**	1	
13.Comfort	.089*	-.051	-.175**	.048	.299**	-.25**	.221**	-.395**	-.101*	-.289**	-.331**	.426**	1

편안성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관습형 등은 진로걱정 요인 중 무걱정과 걱정, 자기존중성, 의존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진로결정상태의 결정성과 편안성과도 높은 상관을 보였다. Holland 유형별 진로걱정과 진로결정상태에 다양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개인마다 진로에 대해 다양한 진로걱정을 보이고 다양한 진로결정상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7. The effect of Career worries degree between Holland preference type and Vocational decision status

	β	t	R^2	F
Step 1	.014*	-3.54	.000	.125*
	-.350**	-8.56	.001	.733*
Step 2	.122**	3.023	.015	9.137**
	-.024*	-5.83	.001	.340*
Step 3 (parameter)	.173***	4.318	.030	18.647***
	.221***	5.571	.049	31.035***
	-.234***	-5.913	.055	34.964***
	-.395***	-10.553	.156	111.374***
Step 3 (independent)	.010***	4.311	.030	9.338***
	.020***	5.583	.050	15.962***
	-.295***	-5.901	.055	17.458***
	-.399***	-10.598	.158	56.577***

*p<.05, **p<.01, ***p<.001

Table 7은 진로결정상태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Baron와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이용한 결과이다. 1단계 Holland 유형이 무걱정과 걱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무걱정: $\beta=.014$, $p<.05$; 걱정: $\beta=-.035$, $p<.05$) 하게 나타났으며, 검증 2 단계를 살펴본 결과 독립변인인 Holland 유형이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상태의 하위요인 결정성과 편안성에 미치

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결정성: $\beta=.122$, $p<.01$; 편안성: $\beta=-.024$, $p<.05$)하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검증 3단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걱정상태의 하위요인인 무 걱정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결정성: $\beta=.173$, $p<.001$, 편안성: $\beta=.221$, $p<.001$)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걱정상태의 하위요인인 걱정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결정성: $\beta=-.234$, $p<.001$, 편안성: $\beta=-.395$, $p<.001$)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1, 2, 3단계로 살펴본 회귀분석이 모두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3단계의 회귀분석에서 무걱정이 진로결정상태에 미치는 영향(결정성: $\beta=.173$, 편안성: $\beta=.221$)보다 Holland 유형과 무걱정을 동시에 넣었을 때의 진로결정상태에 미치는 영향(결정성: $\beta=.153$, 편안성: $\beta=.020$)이 더 작아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리하면, Holland 유형은 진로걱정상태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며, 진로걱정상태는 진로결정상태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Holland 유형별로 진로걱정수준이 다르며, Holland 유형의 진로걱정수준에 따라 진로결정상태도 다르게 나타났음을 의미하며 진로걱정상태가 Holland 유형과 진로결정상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Holland 유형이 진로걱정유형인 자기존중성, 의존성, 자기비판성에 미치는 영향을 Table 8을 통해 결과를 볼 수 있다. 의존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beta=.118$, $p<.01$)하게 나타났다. 검증 2단계를 살펴본 결과 Holland 유형이 진로결정상태의 하위요인 결정성과 편안성에 미치는 영

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결정성: $\beta=.122$, $p<.01$, 편안성: $\beta=-.024$, $p<.05$)하게 나타났다. 검증 3단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걱정유형 중 의존성이 진로결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결정성: $\beta=.150$, $p<.001$, 편안성: $\beta=.477$, $p<.001$)하게 나타났다.

3단계의 회귀분석에서 의존성이 진로결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결정성: $\beta=-.269$, 편안성: $\beta=-.289$)보다 Holland 유형과 의존성을 동시에 넣었을 때의 진로결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결정성: $\beta=-.275$, 편안성: $\beta=-.299$)로 더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의존성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The effect of Career worries type between Holland preference type and Vocational decision status

	β	t	R^2	F
Step 1	.005	.133	.000	.894
	.118**	2.911	.014	8.472**
	-.051	-1.264	.003	1.597
Step 2	.122**	3.023	.015	9.137**
	-.024*	-.583	.001	.340*
Step 3 (parameter)	-.269***	-6.875	.073	47.264***
	-.289***	-7.423	.084	55.107***
Step 3 (independent)	-.275***	-6.961	.075	24.279***
	-.299***	-7.365	.084	27.508

* $p<.05$, ** $p<.01$, *** $p<.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졸업예정자의 Holland 유형에 따라 진로결정상태를 분석하고 진로결정상태에 진로걱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상담자들이 상담 장면에서 대학생들의 진로걱정의 다양함을 고려하여 상담을 진행시킴으로써 자아실현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Holland 유형별 대학생의 진로걱정정도와 진로걱정유형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진로걱정정도의 요인으로서 무걱정과 걱정, 진로걱정유형의 요인으로서 자기존중성, 의존성, 자기비판성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무걱정이 높은 Holland 유형 순으로 진취형, 사회형, 현실형, 탐구형, 관습형, 예술형등으로서 걱정이 높은 Holland 유형 순으로는 예술형, 관습형, 탐구형, 현실형,

사회형, 진취형 등으로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

자기존중성이 가장 높은 유형은 진취형이었으며 진취형은 무걱정 수준도 가장 높게 나왔다.

의존성이 가장 높은 유형은 관습형이었으며, 다른 연구자의 선행 연구에서 관습형은 다른 진로유형보다 부모 진로지지를 높게 인식하며 이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도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한다[30].

자기비판성이 가장 높은 유형은 탐구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Holland 유형별 진로결정상태를 보면 현실형, 사회형, 진취형은 결정-편안의 상태를 보였으며, 탐구형은 결정-불편, 예술형과 관습형은 미결정-불편의 상태를 나타냈다. 걱정이 높은 예술형과 의존성이 높은 관습형의 진로결정상태는 미결정-불편으로 나타났으며, 걱정이 높은 진취형은 결정-편안의 진로결정상태를 나타냈다.

셋째, Holland 유형별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에 진로 걱정이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며 완전매개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분석결과 독립변인인 Holland 유형이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상태의 하위요인 결정성에 대해 2단계의 회귀계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진로걱정정도가 진로결정상태의 하위 요인인 결정성과 편안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2 단계보다 약화된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어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와 성립을 위한 1, 2, 3 단계로 살펴본 회귀분석이 모두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Holland 유형은 진로걱정정도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며, 진로걱정정도는 진로결정상태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걱정이 높은 예술형과 관습형은 진로결정상태가 미결정-불편의 상태로 나타났으며 진로걱정이 많을수록 진로에 대한 결정이 확실하지 않으며 불편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무걱정이 높은 진취형의 진로결정상태는 결정-편안, 사회형, 현실형의 진로결정상태는 결정-편안의 상태를 보여 무걱정이 높을 경우 진로에 대해 편만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즉 Holland 유형별로 진로걱정정도가 다르며, Holland 유형의 진로걱정정도에 따라 진로결정상태도 다르게 나타나 진로걱정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진로걱정유형이 Holland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며, 진로걱정유형은 진로결정상태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중성이 높은 진취형은 무걱정이 높은 유형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에 긍정성을 지닌, 즉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기존중성이 높을 수록 진로걱정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결정-편안의 진로결정상태를 보였다. 의존성이 높은 예술형과 관습형은 진로걱정이 높은 유형으로 진로결정상태가 미결정-불편한 상태임을 보였다. 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정하여 진로를 결정해야하는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진로걱정수준이 높으며 이는 진로미결정-불편상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 비판성이 높은 탐구형은 결정-불편의 진로결정상태를 보인다 있다. 이는 Holland 유형별로 진로걱정유형이 다르며 진로걱정유형은 진로결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Holland 유형별로 진로걱정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진로결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실제진로상담에서 내담자의 진로걱정의 차이에 따라 차별화된 상담방법으로 진행해야함을 시사함과 동시에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에 대한 연구에 비해 진로걱정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기에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References

- [1] [http://www.moe.go.kr\(2014. 4\)](http://www.moe.go.kr(2014. 4))
- [2] [http://kosis.kr\(2015.01\)](http://kosis.kr(2015.01))
- [3] Namhee Goo, A Study of Career Decision-Making Features According to Career Types of Holland, Korean Career Counseling Research, Vol. 3, No. 1, pp. 123-139, 1998.
- [4] Soyeon Hwan, Kum Lan Yu,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ncouragement in the relation between affectivity to career decision statu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n the Student Counseling Center
- [5] Hyecheon Park. The effect of openness, perfection ism, career compromise and career barriers on career decision status, Konkuk University of Korea master's thesis, 2012.
- [6] Hyunkyun Shin, Jaeyoon Chang, The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gender, job-seeking stress and mental health in collegesenior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2 No. 4 , pp815-827, 2003
- [7] Migyeon Kim, The Effect of Anxiety Level for the Cognition of Employment Possibility of University Student, Kyonggi University of Korea master's thesis, 2008.
- [8] Jeeyoon Suh, Analyse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ment Insecurity and The Standard of Selecting Workplace of Senior Students, Kyonggi University of Korea master's thesis, 2008.
- [9] Taylor, K. M., & Popma, J.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alience, locus of control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 17-31. 1990.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90\)90004-L](http://dx.doi.org/10.1016/0001-8791(90)90004-L)
- [10] Sunjoong Kim,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Hop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Hongik University of Korea master's thesis, 2005.
- [11] Eunyoung Kim,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in Relation to Their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Vol. 19, No. 4, pp.1079-1100, 2007.
- [12] Mikyoung Cho, Eunji Choi, Jiwon Lee, Yuna Lee, Jiyong Chae, Correlations in Appearance, Job-seeking Stress and Job-seeking Anxiety in Undergraduate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 10, No. 2, pp. 141-150, 2013.
- [13] Jeuong-A Kim,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 Preparation Behavior, and Stress Coping On Job-Seeking Stres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tudies, Journal of Secretarial Science, Vol. 23, No. 1, pp. 141-164, 2014.
- [14] Brown, S. D. & Lent, R. W.A social cognitive framework for career choice counseling.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 354-366.1996.
- [15] Juhyun Park, Hoonjin Lee, The Effects of Worry Specificity on Anxiety and Cognitive Appraisals,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Vol. 13, No. 1, pp. 33-50, 2013.
- [16] Seungwon Seol, Kyungja Oh, Mediating effect of problem orientation = The mechanism of the influence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perceived emotion controllability on worr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7, No. 1, pp. 209-235, 2008.
DOI: <http://dx.doi.org/10.15842/kjcp.2008.27.1.013>
- [17] Jones, L. K. & Chenery, M. F. Multiple Subtypes among vocationally undecided college students: A model and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logy, 27, 469-477.1980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27.5.469>
- [18] Namsoon Kim, Jonghoon Bae, Development of Career Decision Profile for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Vol. 14, No. 3, pp. 83-98, 2000.
- [19] Holland, J. L. & Holland, J. E. Vocational indecision :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1997.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24.5.404>
- [19] Byong sook Kim, Vocational Psychology, Seoul, Sigmappress, 2006.
- [20] Miran Park, Clusters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the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Worry, Incheon University of Korea master's thesis, 2011.
- [21] Suyeon Kim,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tendency,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 focused on th APS-R (the Almost Perfectionism Scales-Revised), Yonsei University of Korea master's thesis, 2005.
- [22] Soojeong Kim. The Analsis of Career Adaptability by Cultural Self-Construal, Preference Type, Work Value Subtypes, Kyonggi University of Korea master's thesis, 2012.
- [23] Seongjin Yoo, Seokman Kwom.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worriers : Cognitive bias in evaluation of and coping to threat and catastrophizing tendency, The Korean Journal ofClinical Psychology, Vol. 20, No. 3, pp. 467-487,2001.
- [24] Jeongim Lee, Junghye Kwon, The Effects of Worry and Emotional Regulation on Sleep and Fatigu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7, No. 1, pp. 1-14, 2008.
DOI: <http://dx.doi.org/10.15842/kjcp.2008.27.1.001>
- [25] Seongjin Yoo, Seokman Kwom. Personality Traits of Worriers, Psychological science, Vol. 9,No. 1, pp. 15-37, 2000.
- [26] Hanjoo Kim,. Moderating effects of narcissism and self-compassion on the relationshin between self-esteem and aggression in ego threat situation, Korea University of Korea master's thesis, 2010.
- [27] Suyeon Kim,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tendency,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 focused on th APS-R (the Almost Perfectionism Scales-Revised), Yonsei University of Korea master's thesis, 2005.
- [28] Sunhee Park, The Impact of Implicit and Explicit Dependency on Depression, Yonsei University of Korea

master's thesis, 2013.

- [29] Hyunju Cho, MyoungHo Hyun, The effects of perceived stress and self compa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criticism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Vol. 16, No. 1, pp. 49-62, 2011.
- [30] Hyunjung Kim, Sangmin Lee, Boyoung Choi,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areer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iency by the career personality types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 40, No-[2011] pp.31-51, 2011

최민서(Min-Seo Choi)

[정회원]



- 2014년 2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직업학석사)
- 2015년 2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박사과정)
- 2014년 9월 ~ 현재 : 신문대학교 진로·취업교과목 강의
- 2014년 9월 ~ 현재 : 천안연암대학교 취업교과목 강의
- 2014년 11월 ~ 현재 : 인스타커리어 공동대표

<관심분야>

진로, 취업, NCS